제20300호

11

남해안 지상낙원 여수 해수욕장으로 여름 피서 떠나요

마음쨋 즐겨라 낮엔 Hot하게~ 밤엔 Cool하게~

여름휴가 절정기다. 푹푹찌는 무더위에 열대야까지, 뜨겁고도 시원한 해수욕장이 그립다.

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도시 여수로 여름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다. 특히 여수지역 내 14개 해수욕장은 본격적인 휴 가철을 맞아 연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달 만성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여수지 역 14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.

다도해 365개의 아기자기한 섬으로 둘러싸인 여수는 가막만의 완만한 모래사장과 잔잔한 파도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 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다. 특히 해안가, 섬 어귀 발길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해수욕장은 마치 외국 유명 해양관 광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.

여수가 보유한 주요 해수욕장을 소개한다.

만성리 여수 밤바다 배경지 낭만 만끽 사 도 물 빠지면 해삼·고동 줍는 재미

낭 도 깨끗한 해변·투명한 바다 일품

유 림 밤하늘 촘촘한 별과 함께 힐링

안 도 해수욕에 낚시까지 일석이조

◇만성리해수욕장=만흥동에 있으며, 버스커버스커의 '여수밤바다' 배경지다. 국내에서 유일한 검은 모래로도 유 명하다. 모래찜질을 하면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최근 접근로도 4차선으로 확포장됐다.

여수

유림 해수욕장

◇방죽포해수욕장=돌산읍 죽포리에 있다. 소나무 숲이 울창하며, 입자가 고운 모래로 1970년대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. 길이 150미터, 폭 30미터로 아담한 규모의 해수욕장이지만 수심과 경사도가 낮아 여수시민이나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다.

◇사도해수욕장=여수항에서 서남쪽으로 27km, 화양면 남쪽 해안에서 5km 거리에 있는 화정면 낭도리에 있다. 모래가 곱고 바닷물이 맑으며 주위 경관이 수려하다. 물이 빠지면 낙지·해삼·개불·고동 등 갯것을 줍는 재미도 있다.

◇낭도해수욕장=경사가 완만하고 맑은 물을 자랑하는 해수욕장으로 사도해수욕장과 마주 보이는 곳에 있다.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해변과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의 맑은 바다가 일품이다. 파도가 거의 없고 모래가 부드러워 남녀노소 물놀이 장소로 적합하다.

◇손죽해수욕장=거문도에서 40km 떨어진 섬인 손죽 도에 있다. 길이 1km, 면적 3400㎡의 소규모 해수욕장이 며, 찾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덕분에 한적한 피서를 즐 기기에 제격이다. 곳곳에 갯바위 낚시터가 있으며, 주변 민 박시설도 있다.

◇대동해수욕장=여수에서 남서쪽 해상으로 77km, 거 문도에서 북쪽 해상으로 18km 떨어진 섬인 초도의 북서쪽 대동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. 원래 지역주민만 이용하던 곳



으로, 최근 초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. 편의시설도 제대로 들어서 있다.

◇정강해수욕장=초도에 있는 또 다른 해수욕장으로 규모는 작지만, 고운 모래와 소나무, 소사나무, 대나무 등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선사한다. 갯바위가 주변에 많고, 소라와 고동, 거북손 등을 풍부하게 채취할 수 있어 아이들 체험학습장소 겸 가족 피서지로 적합하다.

◇유림해수욕장=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2시간을 가면 거문도 대표 유림해수욕장을 만날 수 있다. 거문도해 수욕장으로 불리기도 한다. 때묻지 않은 원시적 자연환경 과 맑은 바닷물이 일품이다. 밤하늘에 촘촘하게 박힌 별과 함께하는 환상적인 밤바다는 덤이다.

◇서도해수욕장=거문도 서도에 있으며, 수심이 얕고 모래가 곱다. 파도도 잔잔하다. 4000㎡로 모래사장은 넓지 않지만 모래입자가 매우 고운 것이 특징이다. 수온이 적당 하고 물이 맑아 해수욕장으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

◇장등해수욕장 = 화양면 장수리 장등마을에 있으며, 탁 트인 다도해의 광활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. 리조트와 펜션, 각종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. 모래가 곱고 주변 경치도 수려하다.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어린이들이 놀기에 제격이다.

◇신덕해수욕장=신덕동에 있으며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얕은데 다 모래입자도 곱다. 백사장 넓이는 3000㎡로 낚시하기에 좋은 곳이다. 조개류와 고동, 게 등도 많다. 백사장 왼편에는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섬과 해변이 있다.

◇모사금해수욕장=오천동 모사금마을에 있다. 만성리해수욕장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, 모래사장과 갯돌밭이어우러져 있다.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한적해 휴가철 가족단위의 피서객이 많이 찾는다. 사계절 바다낚시를 즐길 수있는 낚시터와 청소년 수련장도 있다.

◇무슬목해수욕장=돌산 평사리에 있는 해변유원지로 폭이 100m 밖에 되지 않는다.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로 알려져 있다. 향일암・용월사와 함께 돌산의 유명 한 해돋이 장소다. 해송숲과 아기자기한 몽돌로 이뤄진 몽 돌밭이 700여m에 걸쳐 펼쳐져 있다.

◇ 안도해수욕장 =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금오 도 동남쪽 안도에 있다. 바닷물이 맑고, 모래찜질 장소로 제격이다. 해변이 아늑하고 경관이 수려해 매년 많은 피서 객이 찾는다. 인근 바닷가에서 계절 낚시를 즐길 수 있고, 동고지해수욕장과도 가깝다.

파포기합니. /여수=김창화기자 chkim@kwangju.co.kr











